

# “두 번 접는 스마트폰 연내 출시 AI 강화, 중저가 모델까지 확장”

**노태문 삼성 사장 기자간담회**  
갤럭시 AI, 4억대 기기 탑재 예정  
확장현실 헤드셋 하반기 출시 목표  
AI 기능 기존 모델 업데이트 제공  
AI 헬스케어 맞춤형 서비스 확장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과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출시한다. 모바일 인공지능(AI) 기능인 ‘갤럭시 AI’는 연내 4억대 기기에 탑재돼 AI 생태계 확장도 본격화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트라이폴드 제품은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올해 안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갤럭시 Z폴드7, Z플립7에 이어 트라이폴드폰 출시까지 공식화하면서 폼팩터 다변화를 통한 폴더블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트라이폴드폰을 양산한 기업은 중국 화웨이 유일하다.

노 사장은 “지난해 갤럭시 S25 언팩에서 실루엣을 공개했고, 올해 MWC에서는 시제품을 전시했다”며 “이제 완성도가 확보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본격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품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콘셉트로는 ‘플렉스 G’와 ‘플렉스 S’ 등이 언급돼 왔다.

XR 헤드셋 역시 하반기 전략 제품으로 무게감이 크다. 삼성전자는 현재 구글, 퀄컴과 협력해 ‘프로젝트 무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과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출시한다. 위 사진은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 직후 국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한’을 개발 중이다. 노 사장은 XR 안경 형태의 장비에 대해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태문 사장 “갤럭시 AI, 4억대로 확대”… 중저가 모델까지 적용**

하드웨어 혁신에 더해 AI 중심의 사용 경험도 대거 확대된다. 노 사장은 “작년 2억대에 갤럭시 AI를 탑재했는데 올해는 2배 이상인 4억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A 시리즈 등 중저가 모델까지도 하드웨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I 기능을 지원하며, 기존 모델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트를 통해 기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부터 갤럭시 AI 무료 제공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유료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노 사장은 “기본 기능에 한해 당분간 무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 기능의 경우 파트너사와 유료화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사장은 “스마트폰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와 GPS 등 고성능 센서와 온디바이스 AI를 갖춘 기기”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중심의 컴퓨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기들은 이를 보완하는 동반자 역할로 진화해나갈 것이라 판단했다.

**◆헬스케어까지 확장… ‘커넥티드 케어’ 본격화**

디지털 헬스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한다. 최근 인수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젤스’를 기반으로 웨어러블 기기와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는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노 사장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을 의식한 질문도 나왔다.

노 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해왔다”며 “다양한 거점을 활용한 공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두께·AI·주름까지 모두 달라졌다”

**갤 플립7·폴드7 체험해보니**  
디자인 개선, AI 기능 실생활 적용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로 몰입감 증대

삼성전자가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7’과 ‘갤럭시 Z 폴드7’을 공개하며 폼팩터 혁신과 인공지능(AI) 기능 확대를 동시에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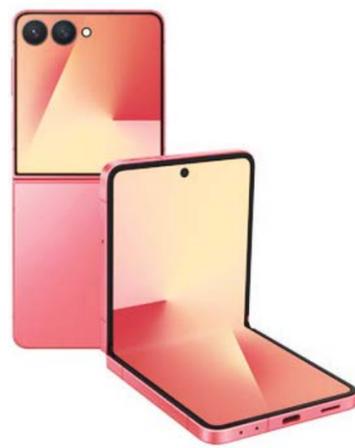
삼성전자는 1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갤럭시 언팩 2025에서 공개한 신제품 갤럭시 Z 플립7과 갤럭시 Z 폴드7을 선보였다. 두 제품 모두 디자인과 사용성에서 전작과 확연히 달라졌고, 실용적인 인공지능(AI) 기능도 체감될 만큼 진화했다.

플립7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4.1인치로 커졌다. 밝기 최대 2600니트, 120헤르츠 주사율, 자동 밝기 조절 기능까지 더해져 야외 가독성이 크게 개선됐다. 기기를 펼치지 않고도 문자 회신, 일정 확인, 고화질 셀피 촬영은 물론, 음성으로 AI를 호출해 앱을 바로 조작할 수 있다.

접었을 때 두께는 13.7밀리미터, 무게는 188그램으로 작고 가볍다. 커버와 후면에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2가 적용돼 생활 스크래치와 충격에도 강하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화면 주름이다.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평탄하고 매끄러워 접히는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시각적·촉각적 이질감이 줄어든 덕분에 콘텐츠 감상이나 문서 작업의 몰입감도 한층 높아졌다.

AI 기능도 본격적으로 실사용 단계에 진입한 느낌이다. 커버 디스플레이에 대고 “강남역 근처 회식 장소 3곳 추천해줘”라고 말하자 음식점 리스트가 뜨고, 이어 “노트에 저장하고 캘린더에 추가해줘”라고 하니 관련 앱이 자동 실행됐다. 별도 앱을 일일이 띄우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정리할 수 있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폼팩터의 장점이 AI로 극대화되는 느낌이었다.

폴드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밀리



갤럭시 Z폴드7 시리즈 중 블루 웨도우 색상(왼쪽)과 갤럭시 Z플립7 시리즈 중 코랄레드 색상. /삼성전자

미터로, 갤럭시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볍다. 무게도 215그램으로 줄어갔다.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는 8.0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는 6.5인치로 전작 대비 11% 넓어졌으며, 초박막 강화유리(UTG)와 신규 힌지를 적용해 내구성도 높였다.

AI의 실감도는 폴드7에서 더 두드러졌다.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열고 “내 운동 기록을 참고해 운동화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AI가 적합한 제품을 보여주고, 이어 “노트에 저장해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메모 앱이 실행돼 정보가 정리된다.

신제품은 오는 15일부터 국내 사전 판매를 시작하며, 오는 25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된다. 가격은 플립7이 148만5000원부터, 폴드7은 237만9300원부터다.

/이혜민 기자

# “한국 경제, 향후 5년 L자·우하향 전망”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조사**  
저출생·고령화에 생산성 정체  
반등보다 장기침체 가능성 주목  
“성장동력 회복 시급” 한목소리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향후 5년간 한국 경제가 ‘L자형’ 또는 ‘우하향’ 추세를 보이며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는 2026~230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항목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대로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나타났다.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새정부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 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통상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

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새정부 5년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38.2%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29.4%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기 때문’, 26.5%는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KAI, 수장 교체 반복에 R&D 전략 ‘흔들’

26년 동안 8번의 정권 교체  
낙하산 인사 논란, 기술주권 위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수장을 또다시 교체할 예정이다. 창사 26년 동안 8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8명의 사장이 그때마다 물러나 새롭게 임명됐다. 잦은 수장교체로 연구·개발(R&D)과 수출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은 관료·군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선임될 경우 ‘전면 파업’을 공언하고 있어 구조적 악순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강구영 KAI 사장이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지난 1일 물러나면서 차기 사장 인선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AI측은 ‘주요 사업 마무리 후 차진 용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

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결단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역대 KAI 사장단 임기 이력을 보면 새 정부 들어설 때 연임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999년 통합 법인 출범 이후 KAI 사장은 모두 8명으로 예외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임명됐다.

4대 사장인 김홍경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임기를 1년 남긴 채 퇴임했고, 하성용 전 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 검찰 수사를 받다 자진사퇴했다. 6대 사장인 김조원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친 뒤 물러났고, 7대 사장인 안현호 사장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연임하지 않고 물러났다. 이처럼 잦은 수장 교체는 연구·개발(R&D)과 수출 전략의 연속성을 흔들고 있다.

/이승용 기자